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4호 [주체 제25563호] 주체106(2017)년 2월 2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훈국가합창단창립 70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사회주의승리의 전군가높이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파시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의 힘있는 나팔수인 공훈국가합창단 창립 70돐 기념공연이 22일 인민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어나 우리 혁명의 제1세대 제1번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을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로 장성강화된 공훈국가합창단의 창립 70돐을 맞으며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심속에 나오시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며 혁명군가의 무한대한 위력으로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대안의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창작가, 기자, 편집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훈국가합창단은 대양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 경사로운 2월에 창립 70돐을 맞이한 긍지를 안고 뜻깊은 공연무대에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들과 조국찬가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가들로 환희로운 음악세계를 펼치었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빨찌산노래 편곡》, 여성3중창과 남성합창 《정일봉

의 봄맞이》,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조국찬가》,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경주곡 《청산빈에 풍년이 왔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영광만리에 천하를 뒤엎드는 선군혁명의 승전가를 힘차게 울리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고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폭발시켜온 혁명군대 예술단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예술적화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남성4중창 《그이의 한생》,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가장 간고하고 존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합창단을 최고사령부의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시고 방사포의 일제사격파도 같은 위력한 노래포성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결사수호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불려입으려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장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으로 천만의 총대동지, 혁명전우들을 키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전군가를 선창하는 나라

의 만아들예술단체, 세계일류급예술단으로서의 위력과 명성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는 출연자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었다.

우리 당의 글함없는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응축된 공연은 남성합창 《사회주의지키세》, 《우리의 행군길》로 절정을 이루었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홍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천만리를 여세계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자할 천만군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우리 식의 관현악과 합창, 다양한 성악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결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리쳐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이 손을 지어 답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전문예술이 철저히 구현되고 만리마사대의 정신이 맥동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고 창립 70돐을 맞이한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조선혁명의 핵심부대, 기관차, 오늘의 쟁쟁한 빨찌산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 지휘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민총동력전을 전투에서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혁명군가의 우렁찬 피성으로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